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성공한 도심사찰이나 농어촌지역 사찰의 사례를 언급할 때 대부분은 주지스님 개인의 희생이나 원력만을 생각하기 쉽다. 지금까지 도심·농어촌 포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물론, 불교계 차원의 고민이 부족했던 결과다. 더 이상 종단이나 불교계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도심·농어촌 등 지역포교를 논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차별화된 포교전략과 주민맞춤형포교를 위한 포교인프라 구축의 조건을 살펴보자.

'원력·차별화 전략·종단 지원' 삼박자 맞아야

- 글 쓰는 순서 ●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 13. 기자방담

■ 도시 - '블루오션'을 개척하라
 도심포교현장의 스님들은 부족한 공간, 인적, 물적 토대의 빈곤 속에서 마땅한 포교 프로그램 개설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심포교에 성공한 사찰들 가운데 처음부터 충분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시작한 곳은 한곳도 없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면서 대형교회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의 특화된 생존전략을 거울삼는다면 소규모 도심사찰의 포교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이후 80~90년대 강남포교원 구룡사 능인선원 불광사 삼선포교원 안국선원 수원포교당 관음사영남불교대학 한마음선원 등은 다양한 신행프로그램 운영, 교리화습(교양대학)조직을 체계화한 신도관리 시스템, 현대화된 건물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나름대로 그늘이 있기 마련이었다. 사찰이 대형화되면서 신도개인의 신행활동 등 세세히 챙기기 어려워진 것이다. 90년대 이후 이러한 틈새를 적절히 메우는 특화된 포교전략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안양 지장선원 주지 현호 스님은 "도시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다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더구나 교통이 발달돼 있어 어린이포교, 문화포

가집으로써 이를 성인 포교로 연결시키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한자교실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안산 보문선원(주지 보림)은 지역노인들에게 돌보기 무료 보급 같은 복지활동 뿐만 아니라 공단지역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활동으로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보림 스님은 평소 '포교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당장의 성과는 작지만 나중에 태풍을 만들어낼 인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많은 사찰들이 교육 포교 복지 사회 수행 등 특화된 프로그램들로 지역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심포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신도교육 프로그램과



도시·농어촌지역 포교의 핵심은 주지스님들의 원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다. 사진은 안산 보문선원 신도들이 지역어르신들을 위해 돌보기를 보시하는 모습.

원력 갖춘 인재 전문교육 통해 집중 육성 주민정서·지역문화 반영한 전략 수립을 포교거점사찰 육성 등 지원 뒤따라야

교, 수행포교, 복지포교 등 그 사찰의 특성이 살아 있으면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사찰이 가진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의왕 화사(주지 덕문)는 현대적 건축디자인인 개념을 도입한 편안하고 세련된 사찰공간으로 신도들에게 접근했다. 남다른 사찰건축이 입소문을 타면서 상담을 위주로 신도들과의 접촉을 늘려 도심포교에 성공했다.

대구 앞산공원 내에 위치한 은적사(주지 하운)는 생태와 환경에 조점을 맞춰 회보형식의 환경전문지를 발행하거나 나무심기 방생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의 명물이 됐다.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도심포교의 모범사례도 있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 위치한 부처님마을(주지 호법)은 30~40대 가족별회중심의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하남 상불사(주지 동화)도 신중 주택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이어 곧바로 가족법회를

가집지 포교전략, 우수한 인력, 시대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농어촌 - '주민맞춤형 포교'로 승부하라
 농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은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고령화 현상으로 대변된다. 대부분 바쁜 농사일로 생계를 잇기도 벅잡던데 종교생활은 사치라는 인식도 큰데다, 산사는 일반 신도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사찰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 일부 스님 가운데는 절을 지키기보다 도시에 나가 기도를 해주거나 재를 지내는 데만 열중하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특히 농어촌지역 큰 절 옆에 있는 소규모 사찰들은 신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법회조차 열지 못하는 곳이 늘면서 아예 농촌포교를 포기하는 경향이다. 큰 절 주변 사찰들도 그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제때 바뀌고 있다는 표현이 적

절하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안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농어촌 사찰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지스님의 남다른 포교 원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아 가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

이런 속에서 대부분 어린이 포교, 지역 실정에 맞는 열매이나 사경 등 육체노동에 지친 농어촌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포교 방법을 택하고 있다.

청량산 중턱에 위치한 봉화 정량사(주지 지현)의 경우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지현 스님은 경운기를 타고 밤마다 마을회관으로 찾아 가 법회를 여는 노력 끝에 오늘날 청량사 토대를 만들었다. 지현 스님은 "주지는 지역주민들의 회로애락을 함께하고, 사찰은 신도들이 어울리는 교류와 수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창 고건사(주지 정안)의 경우도 불교 대학을 열고 참선 교실을 해왔지만 결국 실패, 농사일에 지친 사람들이 즐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열매 수행을 선택했다. 현재는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신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경북 성주·군위지역 사찰들은 주변의 만류 속에서도 복지센터를 열고 합창단과 봉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과연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아했지만 지난해 말 성주 조계종사원주지연합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이웃과 하나' 복지관은 주 2회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과 반찬 배달봉사를 펼쳐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관정을 이용한 포교활성화도 농어촌지역에서는 유용하다. 성주 선석사(주지 선문)는 전통사찰의 이점을 살려 군비, 도비 등을 받아 불사에 노력하고, 지역 사찰들과 연계해 포교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불교문화재라는 관광 인프라와 포교를 결합한 사례로 지자체는 전통사찰을 지원하고, 사찰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라
 도심과 농어촌 포교에 있어서도 핵심적 인프라는 역시 원력을 갖춘 인재, 차별화된 다양한 포교전략, 종단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 언급된 많은 사찰들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포교에 뜻을 세운 스님들이 쉽게 의지를 꺾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수행중심의 종단분위기는 구태여 포교에 나서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 종단은 선원 안거 수행뿐만 아니라 일선 포교경력도 우대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포교사를 배출한 활판 활용 시스템을 갖

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재검점해야 한다.

불교대학의 차원이 아니라 일선 포교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포교아카데미' 형태의 전문교육기관과 상시적인 워크숍의 도입도 중요하다.

사찰운영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도심사찰의 주말 법회나 운영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이미 일부에서는 도시-농어촌 사찰간의 전략적 연계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심과 농어촌지역 미래포교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성향과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지역맞춤형'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포교를 지원할 중앙기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역 교구본사와 종단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조계종은 한때 지역별 포교거점사찰을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종단과 교구본사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흐지부지 됐다. 이제라도 종단차원에서 도심·농어촌 지역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포교거점사찰의 적극적인 활동 등 체계적 포교전략 수립에 나설 때다.

한명우·전미희·조용수·배지선 기자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19기 「전생요법·빙의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 무료강제강좌 9월 22일 13:00~16:00까지

■ 개강안내 9월 23일 10:00~18:00까지 (매주 금요일 7회과정)

■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일(2시간용 총20개)

- ▶ 과정별 교재 및 실습예시 제공
- ▶ 교육 참가비 : 200만원
-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 ▶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주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굳잡쟁쟁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킴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회면 건방법,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지유학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세상 속으로, iTV, TJB, CMB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의대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입체 등에서 강의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